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34권 제1호(2017. 3) pp.47-65
Korean J Health Educ Promot, Vol.34, No.1 (2017)
https://doi.org/10.14367/kjhep.2017.34.1.47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스트레스 증상과 그 영향 요인: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중심으로

조원섭, 유승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Depressive·stress related symptoms and associated factors among marriage immigrant women: Focused on risk factors and protective factors

Wonsup Cho, Seunghyun Yoo†
Department of Public Health Scienc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s: This paper aims to identify depressive or stress related symptoms and its associated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mong marriage immigrant women in Korea. **Methods:** The study participants were 490 immigrant wives from '2012 Survey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The participants complet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on socio-demographics, health status, family members' related factors, and other environmental factors. **Results:** Difficulties on child nursing, finance, family conflict, and experience of physical or verbal violence were significant risk variables to the depressive·stress related symptoms. Family life satisfaction, discussion about troubles with Koreans, healthy status, social trust, and discussion about troubles with people from home country were the significant protective variables to mental health. However economic activities were not protective factors but risk factors. **Conclusions:** Mental Health promotion programs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and their family members need to consider the family and community related protective mental health factors and develop supportive system with pre-existing programs and policy modification.

Key words: depressive symptoms, stress related symptoms, risk factors, protective factors, marriage immigrant women

Ⅰ. 서론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제 1차 건강증진 국제대회에서는 세계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달성하기 위해 펼쳐질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원칙과 전략들이 포함된 헌장이 발표되었다. 2000년까지 "Health for All"이라는 슬로건이 실현되기를 희망하였던 이 헌장에서 천명된 건강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누리기 위한 자원 중 하나로 개념화되었다. 또한 양질의 건강은 개인적 발전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의 하나이며, 삶의 질의 중요한 차원으로 다루어졌다(WHO, 1986). 세계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달성하자는 슬로건이 공표된 지 30년이 흐른 지금, 한국사회에서 "Health for All"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1995년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신부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취약 계층에 속하는 남성들이 결혼시장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7).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상업적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이 다수 등장함에 따라 2000년대 이후 농민 혹은 도

Corresponding author : Seunghyun Yoo
1 Gwanak-ro Gwanak-ku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Department of Public Health Science 221 Room 318, Seoul, Korea 08826
주소: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221동 318호
Tel: +82-2-880-2725, Fax: +82-2-762-9105, E-mail: syoo@snu.ac.kr
• Received: February 17, 2017 • Revised: March 23, 2017 • Accepted: March 28, 2017

시 저소득계층의 한국 남성과 아시아 출신 외국 여성의 결혼이 상업적인 방식으로 급증하였다(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7; Kim, 2008). 일례로 2005년은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이 가장 많았던 해로 30,719건이 보고되었으며, 당해 연도 국제결혼 42,356건의 72.5%를 차지하였고, 이는 전체 혼인 314,304건 중 9.8%에 해당했다. 이후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2015년의 경우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이 14,677건으로 당해 연도 국제결혼 21,274건의 69.0%, 전체 혼인 302,828건 중 4.8%를 차지하게 된다(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6).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4월 기준 결혼이주여성은 128,586명으로, 이는 국민의 배우자 자격을 가진 체류외국인 151,978명 중 84.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6).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유입 추세가 감소하고 있으나,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사회구성원이 되었고, 지역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사회적 지원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집단이 되었다(Yang & Kim, 2007). 이들은 결혼이주를 통해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면서 가정에서 모성, 돌봄의 역할을 주요하게 수행한다. 이는 이들의 건강이 자신과 가족구성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사회적 변화까지 촉발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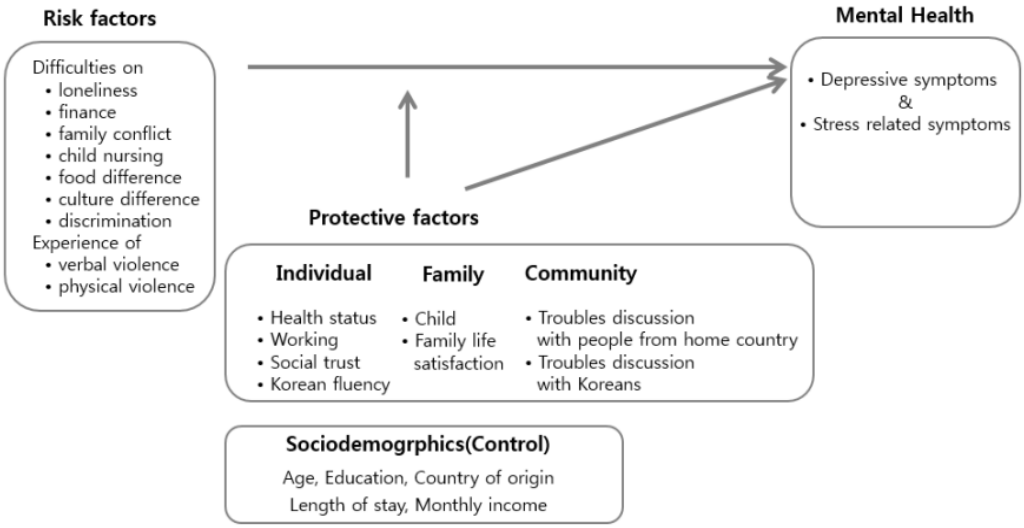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 연구에서 부정적인 정신건강 상태와 더불어 그 위험요인이 주목을 받아왔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이주와 결혼으로 인해 이주 전의 생활습관을 상실하고 생활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느끼거나 우울감, 우울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5; Yang & Kim, 2007). 하지만 Fenta, Hyman과 Noh(2004)가 생활 스트레스 사건 등의 우울 관련 변수와 함께 사회적, 정서적 지지로 인한 높은 생활 만족도를 우울 예방 변수로 제시하였듯,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은 적응 과정과 관련한 개인의 내적 자원과 외적 지지의 관계 속에서 조망하여야 한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연구에서 정신건강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함께 고려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오타와 헌장에서 강조된 돌봄, 전인주의, 생태학적 관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뿐 아니라 보호역할을 하는 요인의 규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이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다.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연령, 학력, 출신국가, 한국 거주기간, 월평균 가구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스트레스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Figure 1] Research model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2년 법무부의 용역과제로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한 '2012년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결혼이주여성 490명의 2차 자료를 활용한 횡단 연구이다. 2012년 체류외국인 실태조사는 법무부의 모집단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규모에 비례한 다단계지역집락표집을 통해 전국표본을 추출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한 자료이며, 2012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진 가운데 총 8개국 출신의 영주권자 774명과 4개국 출신의 귀화자 618명이 참여하였다. 영주권자와 귀화자를 대상으로 한국이주 과정, 영주자격 및 국적 취득 경험,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에서의 사회통합 정도를 파악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수행된 조사이다. 자료 활용과 관련된 윤리적 측면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연구계획서에 대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SNUIRB No. 1503/002-004).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 490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G*power 분석에 근거하여 단계적 회귀분석(효과의 크기 0.15 medium, 유의수준 α 0.05, 검정력 1-β 95%)에 필요한 적정 표본크기인 230명을 초과한 크기였다.

3. 측정도구

1)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결혼이주여성의 연령, 학력, 출신국가, 한국 내 거주기간, 월평균 가구소득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설정되었다.

2) 위험요인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이주와 결혼을 동시에 경험함으로써 삶에서의 큰 변화 혹은 자녀문제, 가족 간의 갈등, 가정 폭력 등의 위험요인을 경험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5; Yang & Kim, 2007). 본 연구 모형에서는 2012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한국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보고한 문항을 기준으로 정신건강의 위험요인을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2). 위험요인은 다음과 같이 외로움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새로 형성된 가족 간의 갈등과 관련된 어려움, 자녀양육 및 교육의 어려움, 음식차이의 어려움, 문화차이의 어려움, 편견 차별의 어려움, 언어폭력 경험의 어려움, 신체폭력 경험의 어려움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새로 형성된 가족 간의 갈등과 관련된 어려움 문항은 한국의 결혼이주라는 특수한 맥락을 반영하는 문항이다.

3) 보호요인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보호요인 역할을 하는 변수를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인 특성의 보호요인으로 건강상태, 경제활동여부, 한국사회에 대한 신뢰도, 한국어 실력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개인의 건강 및 스트레스 체계와 관련된 항상성과 면역상태는 개인 특성의 보호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된다(Masten, 2007; Vanderbilt-Adriance & Shaw, 2008). 따라서 '최근 2주간의 유병경험'은 '건강상태'를 대리하는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생산적인 활동 혹은 직업에의 헌신 여부와 함께 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개인 특성의 보호 요인으로 밝혀졌다(Masten, 2007). 따라서 '경제활동여부', '한국사회신뢰도' 요인을 추가하였다. 정착지 언어의 유창성은 보호효과가 확인되므로(Masten, 2007; Yang & Kim, 2007; de Snyder, 1987), '한국어실력'을 추가하였다.

가족 관련 보호요인으로 '자녀 여부'와 '가정생활만족도' 요인을 선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자녀가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보호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Song & An, 2011), 가족 구성원 간의 애착 관계, 지지여부의 보호효과(Masten, 2007; Park & Yoo, 1999)도 확인되었다.

이웃 및 커뮤니티 구성원들과의 애착 및 지지 관계 또한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확인되어(Masten 2007; Furnham & Bochner, 1986; Bhugra, 2003), '힘들 때 고민을 의논할 한국인 또는 모국인 여부' 요인 추가하였다. 이 문항은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와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되었다.

4) 우울·스트레스 증상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을 평가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신심리평가도구인 SCL-90-R 중 우울, 불안, 신체화 및 관련 부가증상을 평가하는 항목만을 추출한 축소도구가 활용되었다. 총 14항목(두통, 신경과민, 가슴통증, 무기력, 수면장애, 입맛 없음, 잘 울음, 두려움, 외로움, 자살생각, 흥미 잃음, 두근거림, 우울감, 미래에 대한 희망 없음)이 조사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0점(증상이 전혀 없음)에서 4점(매우 자주 증상이 있음)까지 부여할 수 있다. 점수 분포는 최저 0점에서 최고 56점으로 구성되어 있어, 합계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및 스트레스 정도가 심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측정 도구의 신뢰도인 Cronbach's α는 .898로 나타났으며, SCL-90-R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23, 신체화, 우울, 불안, 부가문항의 하위영역별 신뢰도(Cronbach's α)는 .760～.840이다.

4.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Ver 2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분석내용은 첫째,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위험요인, 보호요인, 우울·스트레스 증상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량(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을 산출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위험요인, 보호요인에 따른 우울·스트레스 증상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Tukey B test)을 통해 통계적 차이가 있는 구간을 확인하였다. 셋째, 종속변수로 사용된 우울·스트레스 증상 문항들 간의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독립변수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종속변수인 우울·스트레스 증상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정한 상태에서 위험요인과 개인, 가족, 커뮤니티 관련 보호요인이 우울·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조사대상 결혼이주여성의 주요 특성과 우울·스트레스 증상의 분포

대상자의 특성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대상자는 총 490명으로 20-40대 연령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최소 21세부터 75세까지 분포한다. 평균 연령은 37.22±9.801세이며, 연구대상자 중 30대가 169명(34.5%)으로 가장 많은 분포였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으로 응답한 대상자가 198명(40.4%)으로 다수를 차지하며, 출신국가별 특성을 보면 중국 출신의 여성이 218명(44.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베트남 85명(17.3%), 일본 73명(14.9%)의 순서를 보인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한국 거주기간은 약 8.85±7.293년이며 최소 2년부터 최대 62년의 분포를 보인다. 이 중 4-7년간의 거주자가 276명(56.3%)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월

평균 가구소득을 100-200만원 미만으로 응답한 대상자가 174명(35.5%)으로 가장 많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우울·스트레스 점수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1>. 연령이 낮거나,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우울·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다(p<.01). 출신국가에 따른 우울·스트레스 점수에도 차이를 보였는데, 베트남 출신 여성이 일본 출신 여성에 비해 우울·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다(p<.01). 학력과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우울·스트레스 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은 SCL-90-R의 수정본을 활용하여 우울 및 스트레스 증상 중 우울, 불안, 신체화 등의 특정 증상을 평가하였으므로 다른 연구결과와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자의 정신건강상태는 우울 및 스트레스 증상이 전혀 없는 0점과 모든 증상을 매우 자주 경험하는 56점을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우울·스트레스 점수는 10.52점으로 이들의 정신건강상태는 어떠한 증상도 없다는 0점에 가까워 비교적 긍정적인 정신건강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1> Differences of depressive symptoms by general characteristics and risk factors

Variables			n	%	Mean±SD	t or F
Sociodemographics	Age (years)	≤ 29	129	26.3	12.70±9.301[c]	5.791**
		30-39	169	34.5	10.78±8.683[b,c]	a<c
		40-49	132	26.9	9.30±8.374[a,b]	
		≥ 50	60	12.2	7.82±6.144[a]	
	Education	Middle school or lower	146	29.8	10.47±9.118	.248
		High school	198	40.4	10.82±8.935	
		College or higher	146	29.8	10.16±7.697	
	Country of origin	China	218	44.5	10.21±8.600[a,b]	3.558**
		Vietnam	85	17.3	13.02±10.640[b]	a<b
		Japan	73	14.9	8.08±7.262[a]	
		Philippines	41	8.4	11.61±6.336[a,b]	
		Others	73	14.9	10.38±7.827[a,b]	
	Length of stay (years)	≤ 3	20	4.1	12.75±8.315[b]	4.921**
		4-5	125	25.5	11.94±8.994[b]	a<b
		6-7	151	30.8	11.30±8.244[a,b]	
		8-9	74	15.1	10.57±10.521[a,b]	
		≥ 10	120	24.5	7.67±6.718[a]	
	Monthly income (million won)	< 100	68	13.9	11.75±10.002	2.232
		100-200	174	35.5	11.18±8.373	
		200-300	145	29.6	10.39±9.049	
		≥ 300	103	21.0	8.78±7.204	
Risk factors	Difficulties on loneliness	Yes	145	29.6	11.39±8.666	-1.450
		No	345	70.4	10.16±8.600	
	Difficulties on finance	Yes	245	50.0	11.65±8.828	-2.923**
		No	245	50.0	9.39±8.290	
	Difficulties on family conflict	Yes	94	19.2	12.40±8.382	-2.363*
		No	396	80.8	10.08±8.637	

Variables		n	%	Mean±SD	t or F
Difficulties on child nursing	Yes	272	55.5	11.23±9.418	-2.080*
	No	218	44.5	9.64±7.457	
Difficulties on Food difference	Yes	30	6.1	10.17±10.879	.233
	No	460	93.9	10.55±8.476	
Difficulties on culture difference	Yes	137	28.0	9.76±7.066	1.366
	No	353	72.0	10.82±9.156	
Difficulties on discrimination	Yes	95	19.4	10.51±8.199	.022
	No	395	80.6	10.53±8.739	
experience of verbal violence	Yes	81	16.5	14.26±9.366	-4.003***
	No	409	83.5	9.78±8.290	
experience of physical violence	Yes	9	1.8	19.89±6.392	-3.320**
	No	481	98.2	10.35±8.573	
Depressive·Stress related symptoms(0-56)	Mean±SD			10.52±8.629	

Note: The same letters indicate non-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ased on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 p<.05, ** p<.01, *** p<.001

2. 위험요인과 우울·스트레스 증상의 분포

조사대상 결혼이주여성의 위험요인과 그에 따른 우울·스트레스 증상의 분포를 <Table 1>에 함께 제시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자녀양육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아서 272명(55.5%)이었고(자녀가 있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보면 61.0%), 그 다음이 경제적 어려움 245명(50.0%), 외로움으로 인한 어려움 145명(29.6%), 문화차이로 인한 어려움 137명(28.0%)의 순서를 보인다.

언어폭력 혹은 신체폭력을 경험하는 여성의 우울·스트레스 점수는 각각 14.26점(±9.366), 19.89점(±6.392)으로 그렇지 않은 여성의 9.78점(±8.290)과 10.35점(±8.573)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1, p<.001). 가족갈등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및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에도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우울·스트레스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p<.01).

3. 개인특성의 보호요인과 우울·스트레스 증상의 분포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에 따른 우울·스트레스 증상의 개인 관련 보호요인별 분포를 분석하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만을 정리하였다<Table 2>.

<Table 2> Differences of depressive symptoms by individual protective factors

			Healthy(n=391)			Not Healthy(n=99)			Currently working(n=248)			Work experience(n=155)			No work experience(n=87)		
			n	Mean±SD	t or F	n	Mean±SD	t or F	n	Mean±SD	t or F	n	Mean±SD	t or F	n	Mean±SD	t or F
Socio demographics	Age (years)	≤ 29	101	11.02±7.818[b]	3.919**	28	18.75±11.629[b]	2.875*	49	14.88±10.674[b]	7.251***	43	13.63±8.880	1.347	37	8.73±6.323	.368
		30-39	142	9.61±7.269[a,b]	a<b	27	16.89±12.429[a,b]	a<b	74	10.01±8.544[a]	a<b	64	12.59±9.247		31	8.84±7.258	
		40-49	104	8.46±7.579[a,b]		28	12.43±10.405[a,b]		84	8.70±8.001[a]		37	11.43±9.394		11	6.73±6.513	
		≥ 50	44	6.93±5.458[a]		16	10.25±7.380[a]		41	7.46±6.075[a]		11	7.82±6.750		8	9.63±6.140	
	Country of origin	China	165	9.24±7.576	1.846	53	13.21±10.746	1.341	116	9.47±7.656[a,b]	2.882*	70	12.40±9.685[a,b]	2.533*	32	8.09±8.596	.223
		Vietnam	63	10.78±8.095		22	19.45±14.175		48	13.42±11.991[b]	a<b	19	16.89±9.122[b]	a<b	18	7.89±5.357	
		Japan	65	7.46±6.697		8	13.13±9.992		37	7.32±7.927[a]		27	8.70±7.086[a]		9	9.33±4.796	
		Philippines	33	10.27±5.496		8	17.13±6.937		22	10.55±5.942[a,b]		15	13.67±7.098[a,b]		4	9.75±4.349	
		Others	65	9.77±7.578		8	15.38±8.551		25	10.48±8.627[a,b]		24	11.33±9.039[a,b]		24	9.33±5.506	
	Length of stay (years)	≤ 3	16	11.00±7.916	3.349*	4	19.75±6.551	.731	6	15.00±9.529	2.688*	9	13.11±9.649	3.468*	5	9.40±2.608	.702
		4-5	100	10.76±7.397		25	16.64±12.786		53	12.38±8.319		37	14.97±10.991		35	8.06±5.955	
		6-7	111	9.99±7.712		40	14.95±8.665		74	10.35±8.116		51	13.25±8.219		26	10.19±8.280	
		8-9	55	9.05±7.668		19	14.95±15.661		42	10.14±11.522		22	12.50±9.806		10	8.10±7.203	
		≥ 10	109	7.38±6.525		11	10.55±8.202		73	7.79±7.491		36	7.72±5.604		11	6.64±4.675	
Risk factors	Difficulties on loneliness	Yes	119	10.61±7.242	-2.210*	26	14.96±12.997	.063	66	11.09±9.367	-1.058	48	11.83±8.120	.395	31	11.35±8.159	-2.656*
		No	272	8.82±7.424		73	15.12±10.685		182	9.75±8.593		107	12.46±9.492		56	7.07±5.034	
	Difficulties on finance	Yes	184	10.40±7.742	-2.608**	61	15.44±10.709	-.403	126	10.80±8.249	-1.260	87	13.32±9.784	-1.651	32	10.47±7.825	-2.051*
		No	207	8.45±6.986		38	14.50±12.238		122	9.39±9.327		68	10.91±7.925		55	7.51±5.581	
	Difficulties on Food difference	Yes	24	6.46±5.718	1.995*	6	25.00±14.353	-2.271*	21	12.52±11.919	-1.315	2	2.50±3.536	1.540	7	5.29±5.438	1.390
		No	367	9.56±7.470		93	14.44±10.827		227	9.89±8.462		153	12.39±9.053		80	8.89±6.652	
	Difficulties on culture difference	Yes	112	9.82±7.325	-.766	25	9.48±5.889	4.099***	65	9.17±7.055	1.001	48	11.31±7.332	.875	24	8.25±6.208	.301
		No	279	9.19±7.443		74	16.97±12.028		183	10.44±9.345		107	12.69±9.748		63	8.73±6.799	
	Experience of verbal violence	Yes	61	12.90±9.125	-3.410**	20	18.40±9.081	-1.484	43	13.40±9.139	-2.726**	31	16.00±10.273	-2.612*	7	11.86±5.429	-1.367
		No	330	8.72±6.862		79	14.24±11.658		205	9.42±8.599		124	11.33±8.533		80	8.31±6.655	
	Experience of physical violence	Yes	3	19.00±5.292	-2.273*	6	20.33±7.312	-1.180	4	17.00±8.485	-1.583	4	22.00±4.082	-2.203*	1	23.00	-2.242*
		No	388	9.29±7.376		93	14.74±11.421		244	10.00±8.783		151	12.01±9.027		86	8.43±6.460	
Individual factors	Health status	Healthy							198	8.87±7.302	3.430**	120	11.20±8.132	2.336*	73	7.70±5.727	3.032**
		Not Healthy							50	15.00±12.083		35	15.91±11.102		14	13.29±8.896	
	Working	Currently working	198	8.87±7.302[a]	6.124**	50	15.00±12.083	.271									
		Work experience	120	11.20±8.132[b]	a<b	35	15.91±11.102										
		No experience	73	7.70±5.727[a]		14	13.29±8.896										
	Social trust (0-10)	Mean±SD		7.36±1.876			7.43±1.944			7.40±1.919			7.23±1.787			7.56±1.975	
	Korean fluency (4-20)	Mean±SD		14.70±3.872			14.33±4.071			14.86±3.946			14.76±3.764			13.72±3.985	
Family factors	Family life satisfaction	Very good	53	5.23±4.131[a]	15.753***	14	16.00[a]±17.016	4.733**	33	8.03±12.406[a]	4.164**	20	7.05±6.419[a]	14.912***	14	6.79±4.003[a,b]	4.352**
		Good	113	7.07±5.211[a,b]	a<d	25	10.52[a]±8.666	a<b	71	7.80±5.290[a]	a<b	37	8.89±6.887[a,b]	a<b<c	30	5.97±6.636[a]	a<b
		Normal	165	10.72±7.241[b,c]		38	15.26[a]±9.400		100	10.77±8.168[a,b]		71	13.01±7.917[a,b]		32	10.84±6.441[a,b]	
		Bad	53	13.19±9.568[c,d]		16	14.94[a]±8.489		37	13.49±9.977[a,b]		21	14.86±9.329[b]		11	11.55±6.890[b]	
		Very bad	7	17.14±13.533[d]		6	31.17[b]±9.390		7	16.00±11.930[b]		6	32.50±9.397[c]		0		
Community factors	Troubles discussion with Koreans	Yes	231	7.63±6.200	5.511***	53	12.00±8.862	2.966**	150	8.23±6.999	3.980***	81	9.67±7.563	3.856***	53	7.21±5.658	2.525*
		No	160	11.88±8.259		46	18.63±12.716		98	12.99±10.411		74	15.11±9.751		34	10.76±7.447	
Depressive·Stress related symptoms (0-56)		Mean±SD		9.37±7.406			15.08±11.268			10.11±8.807			12.26±9.068			8.60±6.609	

Note: The same letters indicate non-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ased on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Table 2 was developed based on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only. *p<.05, **p<.01, ***p<.001

<Table 2> Differences of depressive symptoms by individual protective factors (continue)

			Social trust above average (≥ 7.38)(n=260)			Social trust below average (< 7.38)(n=230)			Korean fluency above average (≥ 14.63)(n=238)			Korean fluency below average (< 14.63)(n=252)		
			n	Mean±SD	t or F	n	Mean±SD	t or F	n	Mean±SD	t or F	n	Mean±SD	t or F
Socio demographics	Age (years)	≤ 29	74	11.608±8.537[b]	4.389**	55	14.07±10.158	2.117	57	12.46±8.565[b]	3.419*	72	12.89±9.900[b]	2.855*
		30-39	91	9.75±8.369[a,b]	a<b	78	11.97±8.941		71	9.51±7.006[a,b]	a<b	98	11.69±9.651[b]	a<b
		40-49	57	7.65±6.950[a]		75	10.56±9.158		73	8.32±8.554[a]		59	10.53±8.050[a,b]	
		≥ 50	38	6.87±6.300[a]		22	9.45±5.629		37	8.46±6.707[a]		23	6.78±5.081[a]	
	Country of origin	China	112	8.94±8.151[a,b]	2.581*	106	11.55±8.892	2.999*	134	9.78±8.043	1.593	84	10.88±9.431	1.503
		Vietnam	56	11.73±10.199[b]	a<b	29	15.52±11.205		26	11.85±9.036		59	13.54±11.308	
		Japan	22	6.00±4.986[a]		51	8.98±7.923		40	7.33±7.597		33	9.00±6.837	
		Philippines	32	10.44±6.059[a,b]		9	15.78±5.783		12	11.83±6.162		29	11.52±6.512	
		Others	38	8.53±5.713[a,b]		35	12.40±9.284		26	9.65±7.348		47	10.79±8.129	
	Length of stay (years)	≤ 3	12	10.83±7.578	3.556**	8	15.63±9.039	2.905*	3	5.00±8.660	4.149**	17	14.12±7.713[b]	2.537*
		4-5	72	10.97±8.898		53	13.25±9.042		46	12.46±8.140		79	11.63±9.494[a,b]	a<b
		6-7	84	10.33±7.548		67	12.52±8.950		76	11.03±7.972		75	11.59±8.555[a,b]	
		8-9	42	8.55±9.741		32	13.22±11.062		44	8.48±8.500		30	13.63±12.455[a,b]	
		≥ 10	50	6.02±4.187		70	8.84±7.875		69	7.33±6.705		51	8.12±6.775[a]	
Risk factors	Difficulties on finance	Yes	126	10.66±8.220	-2.451*	119	12.71±9.349	-1.607	125	10.95±8.105	-2.610*	120	12.38±9.502	-1.777
		No	134	8.25±7.651		111	10.77±8.840		113	8.28±7.615		132	10.34±8.744	
	Difficulties on family conflict	Yes	41	10.20±7.424	-.679	53	14.11±8.743	-2.141*	49	12.16±9.428	-2.468*	45	12.67±7.170	-1.095
		No	219	9.27±8.120		177	11.07±9.161		189	9.04±7.444		207	11.02±9.517	
	Difficulties on child nursing	Yes	143	10.48±8.719	-2.381*	129	12.06±10.105	-.557	133	9.89±8.191	-.440	139	12.51±10.326	-2.407*
		No	117	8.12±6.858		101	11.41±7.763		105	9.43±7.718		113	9.84±7.235	
	Difficulties on culture difference	Yes	65	8.38±6.214	1.199	72	11.00±7.586	.951	76	10.09±7.464	-.539	61	9.34±6.575	2.364*
		No	195	9.76±8.509		158	12.13±9.766		162	9.49±8.215		191	11.94±9.765	
	Experience of verbal violence	Yes	32	12.38±8.477	-2.250	49	15.49±9.792	-3.276**	43	14.21±9.190	-3.690**	38	14.32±9.684	-2.211*
		No	228	9.00±7.871		181	10.77±8.712		195	8.69±7.337		214	10.78±8.973	
	Experience of physical violence	Yes	7	18.57±6.425	-3.118**	2	24.50±4.950	-1.991*	4	20.50±5.260	-2.775**	5	19.40±7.765	-2.008*
		No	253	9.16±7.908		228	11.66±9.093		234	9.50±7.890		247	11.15±9.117	
Individual factors	Health status	Healthy	209	8.28±6.577	3.563**	182	10.62±8.094	3.155**	191	8.80±7.592	3.530***	200	9.91±7.201	3.597**
		Not Healthy	51	14.08±11.164		48	16.15±11.398		47	13.28±8.543		52	16.71±13.132	
	Working	Currently working	137	8.41±8.102[a]	6.218**	111	12.21±9.217	1.877	129	8.96±7.982[a]	4.153*	119	11.35±9.499	2.583
		Work experience	76	12.08±8.611[b]	a<b	79	12.44±9.538		76	11.75±8.269[b]	a<b	79	12.76±9.802	
		No experience	47	8.04±5.425[a]		40	9.25±7.798		33	7.76±6.290[a]		54	9.11±6.804	
	Social trust (0-10)	Mean±SD								7.18±1.886			7.56±1.875	
	Korean fluency (4-20)	Mean±SD		14.32±3.891			14.98±3.913							
Family factors	Child	Yes	231	9.70±8.112	-1.630	208	11.85±9.182	-.392	213	9.70±7.807	-.083	226	11.68±9.367	-2.585*
		No	29	7.14±6.823		22	11.05±8.888		25	9.56±9.448		26	8.12±6.276	
	Family life satisfaction	Very good	41	6.29±9.067[a]	9.337***	26	9.35±10.000[a]	8.533***	37	5.70±4.600[a]	12.769***	30	9.67±13.018[a]	8.933***
		Good	78	7.18±5.303[a]	a<b	60	8.37±6.979[a]	a<b	73	7.19±5.251[a]	a<b,c	65	8.26±6.918[a]	a<b
		Normal	111	11.07±7.847[a]		92	12.16±7.897[a]		95	10.81±7.853[a,b]		108	12.23±7.859[a]	
		Bad	24	11.21±7.205[a]		45	14.87±10.085[a]		27	15.85±10.819[b,c]		42	12.14±7.977[a]	
		Very bad	6	22.00±14.601[b]		7	25.00±13.416[b]		6	19.00±12.394[c]		7	27.57±13.963[b]	
Community factors	Troubles discussion with Koreans	Yes	151	7.74±6.452	3.875***	133	9.26±7.458	4.927***	158	8.07±6.932	4.215***	126	8.92±7.016	4.292***
		No	109	11.74±9.304		97	15.23±10.094		80	12.88±8.925		126	13.71±10.364	
Depressive·Stress related symptoms (0-56)		Mean±SD		9.42±8.008			11.77±9.138			9.68±7.972			11.31±9.152	

Note: The same letters indicate non-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ased on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Table 2 was developed based on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only. *p<.05, **p<.01, ***p<.001

1) 건강상태

유병경험이 없는 건강한 결혼이주여성은 연령이 낮거나,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 우울·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다. 또한 외로움 및 경제적 어려움, 언어 혹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는 경우 우울·스트레스 점수가 높으며, 경제활동 경험이 있으나 현재 일하지 않는 집단, 가정생활에 매우 불만족하는 집단, 고민이 있을 때 한국인에게 의논하지 않는 집단의 우울·스트레스 점수가 높다.

2) 경제활동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은 연령이 낮거나,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 언어폭력을 경험하는 경우, 베트남 출신 여성이 일본 출신 여성에 비해 우울·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다. 이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결혼이주여성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3) 한국사회에 대한 신뢰

한국사회에 대해 조사대상 결혼이주여성 중 평균 이상의 신뢰도를 보이는 결혼이주여성은 연령이 낮거나,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 베트남 출신 여성이 일본 출신 여성에 비해 우울·스트레스 점수가 높다. 그 외 자녀양육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신체폭력을 경험하는 여성, 경제활동 경험이 있으나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의 우울·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다. 반면 평균 이하의 신뢰도를 보이는 결혼이주여성은 가족갈등의 어려움, 언어폭력을 경험하는 여성의 우울·스트레스 점수가 높다.

4) 한국어실력

조사대상 결혼이주여성 중 한국어실력이 평균 이상인 여성은 가족갈등, 경제적 어려움, 경험은 있으나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의 우울·스트레스 점수가 그렇지 않은 여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반면 한국어실력이 평균 이하인 여성은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와 자녀가 있는 경우 우울·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 가족 및 커뮤니티 관련 보호요인과 우울·스트레스 증상의 분포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에 따라 가족·커뮤니티 관련 보호요인별로 우울·스트레스 증상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만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Table 3> Differences of depressive symptoms by family and community protective factors

			Child(n=439)			No Child(n=51)			Family life satisfied(n=408)			Family life unsatisfied(n=82)		
			n	Mean±SD	t or F	n	Mean±SD	t or F	n	Mean±SD	t or F	n	Mean±SD	t or F
Socio demographics	Age (years)	≤ 29	119	13.05±9.432[c]	7.043***	10	8.50±6.536	2.214	106	11.66±8.682[b]	5.545**	23	17.48±10.702	1.184
		30-39	153	11.30±8.817[b,c]	a<b,c	16	5.75±5.196		146	9.96±7.891[a,b]	a<b	23	15.96±11.531	
		40-49	114	8.82±7.917[a,b]		18	12.33±10.605		108	8.14±7.230[a]		24	14.54±11.010	
		≥ 50	53	7.89±6.450[a]		7	7.29±3.200		48	7.13±5.819[a]		12	10.58±6.882	
	Country of origin	China	193	10.22±8.402[a,b]	3.822**	25	10.08±10.190	.546	184	9.30±7.899[a,b]	4.226**	34	15.12±10.528	.851
		Vietnam	79	13.30±10.856[b]	a<b	6	9.33±6.772		67	12.01±10.293[b]	a<b	18	16.78±11.363	
		Japan	64	8.08±7.604[a]		9	8.11±4.400		53	6.51±4.668[a]		20	12.25±10.726	
		Philippines	34	12.47±6.435[b]		7	7.43±3.910		37	11.22±6.290[b]		4	15.25±6.397	
		Others	69	10.74±7.868[a,b]		4	4.25±3.775		67	9.48±6.896[a,b]		6	20.50±10.986	
	Length of stay (years)	≤ 3	18	13.06±8.707[b]	5.537***	2	10.00±2.828	.696	17	12.00±8.703[b]	3.957**	3	17.00±4.359	1.773
		4-5	108	12.42±9.105[b]	a<b	17	8.88±7.817		106	10.63±7.891[a,b]	a<b	19	19.21±11.321	
		6-7	140	11.69±8.357[a,b]		11	6.36±4.433		121	10.09±7.191[a,b]		30	16.20±10.324	
		8-9	66	10.33±10.557[a,b]		8	12.50±10.704		62	10.35±10.845[a,b]		12	11.67±8.988	
		≥ 10	107	7.58±6.424[a]		13	8.38±9.079		102	7.03±5.485[a]		18	11.28±10.996	
Risk factors	Difficulties on finance	Yes	223	11.72±8.820	-2.458*	22	11.00±9.087	-1.739	185	10.66±7.761	-2.544*	60	14.70±11.043	.677
		No	216	9.69±8.455		29	7.17±6.644		223	8.69±7.839		22	16.50±9.526	
	Difficulties on family conflict	Yes	77	12.42±8.427	-1.891	17	12.35±8.433	-2.343*	71	10.37±7.015	-.921	23	18.70±9.256	-1.898
		No	362	10.36±8.716		34	7.06±7.173		337	9.42±8.022		59	13.81±10.886	
	Difficulties on child nursing	Yes	268	11.32±9.428	-1.909	4	5.25±7.274	.936	224	9.95±8.174	-1.036	48	17.19±12.262	-2.260*
		No	171	9.78±7.322		47	9.13±7.994		184	9.14±7.448		34	12.35±7.006	
	Experience of verbal violence	Yes	74	14.45±9.452	-3.790***	7	12.29±8.807	-1.249	57	12.16±7.372	-2.685**	24	19.25±11.655	-2.286*
		No	365	9.96±8.343		44	8.27±7.762		351	9.17±7.863		58	13.50±9.793	
	Experience of physical violence	Yes	9	19.89±6.392	-3.232**				7	20.00±7.371	-3.589***	2	19.50±0.707	-.579
		No	430	10.53±8.636		51	8.82±7.942		401	9.40±7.749		80	15.08±10.741	
Individual factors	Health status	Healthy	347	9.54±7.512	4.603***	44	8.05±6.427	1.051	331	8.59±6.544	4.025***	60	13.65±10.047	2.208*
		Not Healthy	92	15.18±11.117		7	13.71±14.044		77	13.89±11.034		22	19.36±11.278	
	Working	Currently working	209	10.42±9.033[a,b]	4.666*	39	8.46±7.359	1.142	204	9.29±8.280[a,b]	3.172*	44	13.89±10.201	2.616
		Work experience	147	12.27±9.003[b]	a<b	8	12.25±10.886		128	10.89±7.756[b]	a<b	27	18.78±11.823	
		No experience	83	8.75±6.620[a]		4	5.50±6.403		76	8.17±6.504[a]		11	11.55±6.890	
	Social trust (0-10)	Mean±SD		7.38±1.861			7.37±2.126			7.49±1.881			6.79±1.824	
	Korean fluency (4-20)	Mean±SD		14.62±3.846			14.71±4.473			14.85±3.891			13.54±3.853	
Family factors	Family life satisfaction	Very good	62	7.58±9.754[a]	18.478***	5	6.20±5.586	.904						
		Good	127	7.86±6.140[a]	a<b,c	11	5.82±5.437							
		Normal	176	11.86±7.758[a,b]		27	9.63±8.454							
		Bad	62	13.76±9.248[b]		7	12.14±10.367							
		Very bad	12	24.75±13.397[c]		1	10.00							
Community factors	Troubles discussion with Koreans	Yes	257	8.53±6.879	6.194***	27	7.70±7.888	1.070	249	7.96±6.513	5.057***	35	11.94±8.980	2.455*
		No	182	13.82±9.970		24	10.08±7.978		159	12.14±9.037		47	17.60±11.199	
Depressive·Stress related symptoms (0-56)		Mean±SD		10.72±8.692			8.82±7.942			9.59±7.856			15.18±10.630	

Note: The same letters indicate non-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ased on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Table 3 was developed based on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only. *p<.05, **p<.01, ***p<.001

<Table 3> Differences of depressive symptoms by family and community protective factors (continue)

			Troubles discussion with people from home country(n=244)			No discussion with people from home country(n=246)			Troubles discussion with Koreans (n=284)			No discussion with Koreans (n=206)		
			n	Mean±SD	t or F	n	Mean±SD	t or F	n	Mean±SD	t or F	n	Mean±SD	t or F
Socio demographics	Age (years)	≤ 29	59	13.86±9.468[b]	4.110**	70	11.71±9.110	2.117	65	10.32±7.698	2.643	64	15.11±10.190[b]	2.925*
		30-39	82	11.17±8.000[a,b]	a<b	87	10.40±9.313		97	8.54±7.226		72	13.79±9.578[b]	a<b
		40-49	77	9.71±8.830[a,b]		55	8.73±7.733		82	7.18±6.025		50	12.78±10.373[a,b]	
		≥ 50	26	7.77±6.075[a]		34	7.85±6.287		40	7.78±6.455		20	7.90±5.628[a]	
	Country of origin	China	92	10.65±7.732[a,b]	3.706**	126	9.88±9.198	.845	138	8.54±7.722	1.637	80	13.08±9.303	1.494
		Vietnam	38	14.37±12.716[b]	a<b	47	11.94±8.601		40	9.68±7.325		45	16.00±12.220	
		Japan	57	8.05±7.087[a]		16	8.19±8.101		44	6.45±4.327		29	10.55±9.818	
		Philippines	25	13.08±5.729[a,b]		16	9.31±6.730		18	10.50±6.828		23	12.48±5.930	
		Others	32	11.63±8.099[a,b]		41	9.41±7.566		44	8.18±6.047		29	13.72±9.067	
	Length of stay (years)	≤ 3	9	14.89±8.146[b]	4.455**	11	11.00±8.414	1.846	10	10.00±8.014	3.828**	10	15.50±8.059	1.961
		4-5	56	12.93±8.416[a,b]	a<b	69	11.13±9.421		66	9.73±8.184		59	14.41±9.281	
		6-7	69	11.64±7.530[a,b]		82	11.02±8.836		87	9.75±6.989		64	13.42±9.340	
		8-9	32	12.84±12.580[a,b]		42	8.83±8.384		47	7.57±7.012		27	15.78±13.394	
		≥ 10	78	7.85±6.904[a]		42	7.33±6.427		74	6.12±4.740		46	10.15±8.524	
	Monthly income (million won)	< 100	30	10.90±8.079	.589	38	12.42±11.356[b]	2.710*	36	9.36±9.314	.524	32	14.44±10.207	1.220
		100-200	83	11.78±8.441		91	10.64±8.319[a,b]	a<b	96	8.83±7.177		78	14.08±8.865	
		200-300	70	11.11±10.294		75	9.72±7.719[a,b]		81	7.95±5.436		64	13.48±11.500	
		≥ 300	61	9.85±6.997		42	7.21±7.297[a]		71	8.03±6.947		32	10.44±7.594	
Risk factors	Difficulties on finance	Yes	123	11.89±8.477	-1.637	122	11.41±9.196	-2.484*	140	9.51±7.423	-2.569*	105	14.50±9.738	-1.679
		No	121	10.09±8.732		124	8.71±7.809		144	7.41±6.355		101	12.22±9.809	
	Difficulties on family conflict	Yes	61	11.74±7.724	-.770	33	13.64±9.483	-2.601*	46	10.89±7.729	-2.625**	48	13.85±8.800	-.379
		No	183	10.75±8.923		213	9.49±8.360		238	7.97±6.729		158	13.24±10.126	
	Difficulties on child nursing	Yes	139	11.38±9.447	-.793	133	11.07±9.421	-2.025*	149	8.53±7.123	-.211	123	14.50±10.762	-2.110*
		No	105	10.50±7.438		113	8.85±7.420		135	8.36±6.822		83	11.73±7.997	
	Difficulties on culture difference	Yes	77	10.12±6.314	1.254	60	9.30±7.960	.774	80	8.71±6.820	-.401	57	11.23±7.204	2.314*
		No	167	11.41±9.505		186	10.29±8.823		204	8.34±7.042		149	14.21±10.552	
	Experience of verbal violence	Yes	54	12.80±8.345	-1.740	27	17.19±10.706	-3.766**	41	13.32±8.699	-4.016***	40	15.23±10.022	-1.324
		No	190	10.49±8.668		219	9.17±7.915		243	7.63±6.293		166	12.94±9.744	
	Experience of physical violence	Yes	4	19.25±8.958	-1.938	5	20.40±4.561	-2.751**	7	19.71±5.964	-4.474***	2	20.50±10.607	-1.030
		No	240	10.86±8.581		241	9.83±8.552		277	8.16±6.763		204	13.31±9.811	
Individual factors	Health status	Healthy	194	9.80±7.206	3.359**	197	8.94±7.591	3.388**	231	7.63±6.200	3.402**	160	11.88±8.259	3.403**
		Not Healthy	50	15.64±11.730		49	14.51±10.869		53	12.00±8.862		46	18.63±12.716	
	Working	Currently working	128	10.25±9.583	2.077	120	9.96±7.932[a,b]	3.815*	150	8.23±6.999	2.171	98	12.99±10.411	2.466
		Work experience	82	12.57±7.858		73	11.92±10.303[b]	a<b	81	9.67±7.563		74	15.11±9.751	
		No experience	34	10.03±5.885		53	7.68±6.933[a]		53	7.21±5.658		34	10.76±7.447	
	Social trust (0-10)	Mean±SD		7.14±1.913			7.61±1.837			7.45±1.855			7.28±1.932	
	Korean fluency (4-20)	Mean±SD		14.49±3.924			14.76±3.902			15.20±3.916			13.84±3.774	
Family factors	Family life satisfaction	Very good	23	11.83±14.215[a,b]	3.937**	44	5.20±4.391[a]	20.014***	45	5.11±4.539[a]	13.131***	22	12.32±14.247[a]	5.082**
		Good	63	8.08±6.272[a]	a<b	75	7.37±5.963[a,b]	a<b,c,d	97	6.55±4.843[a]	a<b	41	10.41±7.752[a]	a<b
		Normal	112	11.17±7.582[a,b]		91	12.05±8.224[b,c]		107	10.43±7.616[a]		96	12.83±7.992[a]	
		Bad	41	13.66±8.929[a,b]		28	13.50±9.980[c]		30	10.43±6.956[a]		39	16.03±10.189a	
		Very bad	5	18.40±11.632[b]		8	26.88±14.207[d]		5	21.00±14.663[b]		8	25.25±13.414[b]	
Community factors	Troubles discussion with Koreans	Yes	91	8.15±5.874	4.599***	193	8.59±7.441	4.448***						
		No	153	12.69±9.540		53	15.38±10.409							
Depressive·Stress related symptoms (0-56)		Mean±SD		11.00±8.634			10.05±8.614			8.45±6.970			13.38±9.816	

Note: The same letters indicate non-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ased on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Table 3 was developed based on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only. *p<.05, **p<.01, ***p<.001

1) 자녀 유무

자녀가 있는 결혼이주여성은 연령이 낮거나,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 경제적 어려움 및 언어·신체폭력을 경험하는 여성에서 우울·스트레스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유병경험이 있거나, 경험은 있으나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가정생활에 불만족하거나, 한국인과 고민을 의논하지 않는 여성의 우울·스트레스 점수가 높다. 반면, 자녀가 없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유일하게 가족갈등의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응답자에서만 우울·스트레스 점수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2) 가정생활만족

가정생활에 만족하는 결혼이주여성은 연령이 낮거나,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 경제적 어려움 및 언어·신체폭력을 경험하는 여성에서 우울·스트레스 점수가 유의하게 높다. 가정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결혼이주여성은 특징적으로 자녀양육의 어려움 혹은 언어폭력을 경험하는 경우 우울·스트레스 점수가 유의하게 높다.

3) 모국인 고민의논

고민을 의논할 수 있는 모국인이 있다고 응답한 결혼이주여성은 연령, 거주기간, 건강상태, 가정생활만족, 한국인 고민의논여부에 따라 우울·스트레스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특이할만한 점은 고민을 의논할 수 있는 모국인이 없다고 응답한 결혼이주여성에서 가구소득이 낮거나 가족갈등, 자녀양육, 경제적 어려움 및 언어·신체폭력을 경험하는 여성의 우울·스트레스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4) 한국인 고민의논

고민을 의논할 수 있는 한국인이 있다고 응답한 결혼이주여성은 거주기간이 짧거나, 가족갈등, 경제적 어려움 및 언어·신체폭력을 경험하는 여성의 우울·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고민을 의논할 수 있는 한국인이 없다는 응답자에서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인식하는 경우 우울·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5.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스트레스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결혼이주여성의 주요 특성을 파악하고,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결혼이주여성 하위그룹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단계적으로 우울·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Table 4>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of the significant independent variables for depression scores

		Model 1-1			Model 1-2			Model 1-3			Model 1-4			Model 1-5			Model 2		
		B	β	t	B	β	t	B	β	t	B	β	t	B	β	t	B	β	t
(constant)		12.591***		5.158	8.833**		3.458	21.599***		6.567	26.018***		7.469	27.319***		7.915	29.250***		8.759
Education	High school (Ref. Middle school or below)	1.558	.089	1.582	.961	.055	1.004	1.670	.095	1.835	1.680	.096	1.901	1.952*	.111	2.254	2.273**	.129	2.620
	College or higher	1.797	.095	1.545	1.755	.093	1.546	2.097	.111	1.932	1.907	.101	1.804	2.066*	.110	1.998	2.019	.107	1.954
Country of origin	Vietnam (Ref. China)	1.869	.082	1.466	2.273	.100	1.836	1.913	.084	1.567	1.625	.071	1.371	1.244	.055	1.072	.963	.042	.826
	Japan	-.759	-.031	-.558	-1.867	-.077	-1.350	-2.262	-.093	-1.712	-2.540*	-.105	-1.979	-2.081	-.086	-1.642	-1.548	-.064	-1.269
	Philippines	.366	.012	.236	1.025	.033	.669	.589	.019	.391	1.150	.037	.786	.702	.023	.489	.393	.013	.277
	Others	.867	.036	.701	1.078	.045	.883	1.289	.053	1.083	1.264	.052	1.095	1.253	.052	1.110	1.245	.051	1.111
Monthly income (million won)	100-200 (Ref. < 100)	-.938	-.052	-.762	-1.827	-.101	-1.517	-2.020	-.112	-1.776	-1.452	-.081	-1.311	-1.301	-.072	-1.201	-.775	-.043	-.718
	200-300	-1.850	-.098	-1.446	-2.105	-.111	-1.682	-2.475*	-.131	-2.085	-1.532	-.081	-1.316	-1.346	-.071	-1.183	-.987	-.052	-.872
	≥ 300	-3.211*	-.152	-2.306	-3.428*	-.162	-2.504	-3.220*	-.152	-2.463	-1.464	-.069	-1.118	-.809	-.038	-.627	-.420	-.020	-.328
Risk factors	Difficulties on loneliness (Ref. No)				1.282	.068	1.450	1.798*	.095	2.153	1.294	.069	1.587	1.098	.058	1.376			
	Difficulties on finance (Ref. No)				2.320**	.135	2.815	1.500	.087	1.903	.817	.047	1.056	.957	.055	1.263			
	Difficulties on family conflict (Ref. No)				2.789**	.127	2.766	1.796	.082	1.870	1.243	.057	1.320	1.038	.047	1.123			
	Difficulties on child nursing (Ref. No)				2.413**	.139	2.744	2.302**	.133	2.763	1.893*	.109	2.238	1.547	.089	1.865			
	Experience of verbal violence (Ref. No)				3.777***	.163	3.632	2.989**	.129	3.028	2.271*	.098	2.351	2.260*	.097	2.377			
	Experience of physical violence (Ref. No)				8.271**	.129	2.922	6.958*	.108	2.576	6.339*	.099	2.416	7.134**	.111	2.776			
Individual factors	Health status (Ref. Not healthy)							-4.517***	-.210	-4.944	-4.513***	-.210	-5.090	-4.407***	-.205	-5.084	-4.890***	-.228	-5.691
	Currently working (Ref. No experience)							2.682*	.156	2.560	2.258*	.131	2.204	2.228*	.129	2.224	2.390*	.139	2.399
	Work experience							3.659**	.197	3.398	3.230**	.174	3.085	2.998**	.162	2.927	3.314**	.179	3.236
	Social trust (0-10)							-.879***	-.192	-4.404	-.748***	-.164	-3.838	-.731***	-.160	-3.835	-.709***	-.155	-3.759
	Korean fluency (4-20)							-.281**	-.127	-2.813	-.194*	-.088	-1.980	-.152	-.069	-1.575	-.139	-.063	-1.439
Family factors	Family life satisfaction (1 Bad - 5 Good)										-2.170***	-.245	-5.568	-1.995***	-.225	-5.197	-2.325***	-.262	-6.172
Community factors	Troubles discussion with people from home country (Ref. No)													-1.556*	-.090	-1.982	-1.288	-.075	-1.647
	Troubles discussion with Koreans (Ref. No)													-3.790***	-.217	-4.884	-3.757***	-.215	-4.826
	R^2 (Adjust R^2)	.071(.039)			.157(.111)			.263(.215)			.310(.262)			.344(.296)			.314(.277)		
	R^2 change				.086			.106			.047			.034					
	F	2.252**			3.452***			5.457***			6.420***			7.033***			8.483***		
	F change				5.260***			13.212***			15.643***			11.930***					

*p<.05, **p<.01, ***p<.001

분석 단계에 따라 변수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였다. Model 1-1에서는 통제변수인 연령, 학력, 출신국가, 거주기간, 월평균 가구소득을 투입하였고, Model 1-2에서는 위험요인, Model 1-3에서는 개인특성의 보호요인, Model 1-4에서는 가족 관련 보호요인, Model 1-5에서는 커뮤니티 관련 보호요인을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보호요인이 우울·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Model 2에서 통제변수와 함께 개인, 가족, 커뮤니티 관련 보호요인을 투입하였다.

우울·스트레스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Model 1-1), 가구소득이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비해 300만 원 이상일 때 우울·스트레스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5$).

Model 1-2에서는 가족갈등, 자녀양육, 경제적 어려움, 언어·신체폭력을 경험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우울·스트레스 점수가 유의하게 높다($p<.01$, $p<.001$). Model 1-2에서 변화된 설명력은 8.6%로 유의하였다.

Model 1-3에서는 건강한 상태, 한국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한국어실력이 좋을수록 우울·스트레스 점수에 부(-)의 영향을 주었다. 반면, 보호요인으로 예상되었던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와 경제활동중인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우울·스트레스 점수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1-3에서 변화된 설명력은 10.6%로 유의미하다.

Model 1-4에서는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스트레스 점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p<.001$). Model 1-4에서 변화된 설명력은 4.7%로 유의미하다.

Model 1-5에서는 한국인 및 모국인에게 고민을 의논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우울·스트레스 점수가 낮았다. Model 1-5에서 우울·스트레스 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를 영향력이 큰 순서에 따라 나열해보면,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beta*=-.225), 한국인에게 고민을 의논하는 경우(*beta*=-.217), 건강한 상태(*beta*=-.205), 한국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beta*=-.160), 모국인에게 고민을 의논하는 경우(*beta*=-.090)의 순서로 우울·스트레스 점수에 부(-)의 영향을 주었다. 반면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beta*=.162),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beta*=.129)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우울·스트레스 점수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개인 특성의 보호요인과 함께 가족과 지지체계를 모두 고려한 Model 1-5에서는 이전 분석단계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던 위험요인(가족갈등, 자녀양육, 경제적, 외로움 어려움)의 효과가 사라지고 신체폭력 경험(*beta*=.111)과 언어폭력 경험(*beta*=.097)요인만이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Model 1-5에서 변화된 설명력은 3.4%이며($p<.001$), 통제요인과 위험요인, 보호요인은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스트레스 증상을 총 29.6% 설명하였다($p<.001$).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보호요인이 우울·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제요인과 보호요인만을 투입한 Model 2에서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beta*=-.262), 건강한 상태(*beta*=-.228), 한국인에게 고민을 의논하는 경우(*beta*=-.215), 한국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beta*=-.155) 우울·스트레스 점수에 부(-)의 영향을 주었다.

Ⅳ. 논의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 위험요인을 규명해 온 기존 연구(Cha & Kim, 2008; Lim, Oh, & Han, 2009; Ji et al., 2012)와 달리,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뿐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들과 함께 영향력의 방향이 예측과 다른 요인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자녀양육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신체폭력의 경험, 언어폭력의 경험, 가족갈등의 어려움은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요인들은 주로 결혼과 연관되어 있다. 반면, 이주와 관련된 위험요인인 음식차이로 인한 어려움, 문화차이로 인한 어려움, 편견과 차별의 어려움은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위험요인 중 언어폭력의 경험은 다른 위험요인에 비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컸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05)와 Oh와 Kwak(2009)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언어폭력을 경험한 응답자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16.5%에 불과하므로, 언어폭력 경험을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집단의 문제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은 언어폭력의 경험 다음으로 정신건강에 큰 부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Kweon과 Park(2007), Han(2006)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경향으로 보고된다. 연구대상자 중 해당 위험요인 응답자는 각각 55.5%와 50.0%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다. 자녀양육과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어려움이 정신건강에 큰 부적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해당 문제에 대한 학계와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신건강에 대한 보호요인의 영향력을 고려하더라도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p<.10$)과 언어폭력($p<.05$) 및 신체폭력의 경험($p<.01$)은 정신건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경험 응답율이 각각 16.5%와 1.8%에 불과하지만, 개인특성의 보호요인과 가족의 지지, 사회적 지지체계의 보호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더라도 폭력의 경험이 정신건강에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지지체계의 강화에 대한 정책적 노력 외 폭력에 대한 중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느낀다.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은 개인특성의 보호요인과 가족지지체계의 보호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정신건강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과 자녀양육의 역인과 관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국으로의 결혼이주와 관련된 여러 어려움 중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결혼이주여성의 비율이 높고, 자녀양육 관련 어려움의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의 크기가 다른 위험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자녀양육이 사회에서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고려할 때,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보호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경제활동 여부는 예상과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Bae와 Seo(2011), Cha와 Kim(2008), Masten(2007)의 연구에서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던 경제활동은 본 연구에서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여성에 비해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의 부적 영향력이 컸다. 또한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여성에 비해 경제활동 경험은 있으나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의 부정 영향력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의 부적 영향력보다 상대적으로 큰 수치를 나타냈다.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을 단변량 분석 결과에서 확인해보면, 현재 경제활동중인 결혼이주여성에서 40대, 한국 거주기간이 긴 여성, 경제적 어려움 호소, 가족 갈등 및 편견차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다. 이때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 경제활동이란 결혼이주여성을 둘러싼 환경과 결혼이주여성의 역할 및 활동 등이 내포된 복합적인 개념임을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Masten(2007), Bae와 Seo(2011)의 주장처럼 경제활동은 사회활동을 통해 사회적응을 높이는 수단이며,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덧붙여 경제활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효과, 경제활동과 부모역할의 양립, 일가정 양립으로 인한 어려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활동의 의미와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단순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Park, Shin과 Lee(2012)의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일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자녀양육과 일가정 양립의 부담을 지적했다는 결과는 경제활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결혼이주여성의 생활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 그 안에서의 역할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그 맥락을 파악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경제활동경험이 있지만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정신건강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경험이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을 살펴보면, 30대, 거주기간 4～7년, 가구소득 100～200만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 집단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양육의 어려움, 문화차이의 어려움, 언어폭력 경험 응답자의 비율이 비교적 높다. Lee

(2004)가 경제적 능력의 부족이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관련성이 높다고 주장한 것처럼, 단순히 경제활동 여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논하기보다, 경제활동 여부와 연관된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안에서 경제활동, 경제적 어려움, 사회활동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회가 이주자를 대하는 태도, 자녀양육, 가족과의 관계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의 차이에 의해 경제활동이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Masten, 2007; Bae & Seo, 2011), 경제활동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상이한 결과가 보고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삶, 가족과 지지체계 등 결혼이주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그 맥락을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가족 관련 보호요인으로 예상되었던 자녀의 유무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자녀 유무에 따른 단변량 분석결과를 보면, 자녀가 있는 집단은 30대, 자녀양육 어려움, 가정생활 만족 응답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 자녀가 없는 집단은 그 수가 51명에 지나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에는 무리가 있으나, 40대, 고학력자, 가족갈등의 어려움, 문화차이 어려움, 편견차별의 어려움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 특이한 점은, 자녀가 있는 집단은 고민을 한국인에게 의논한다는 비율이 높고, 자녀가 없는 집단은 고민을 모국인과 의논한다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이 지점에서 고민을 의논하는 대상 및 내용과 자녀 간 연관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 자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Park, Park & Kim(2007)은 부모가 자녀에게 시간과 에너지, 경제적 자원을 소비하게 되면서 부부 간 생활만족도가 감소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가족갈등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Lee(2013)와 Lim(2011)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은 부모역할로 인한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자녀가 주는 안정감과 위안이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자녀의 유무가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은 것은 자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이 단순히 자녀의 유무라는 측정변수에 함축되어 그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의심된다. 향후 자녀의 특성, 자녀에 대한 부모역할과 관련된 특성, 부모역할 관련 환경과 체계 등 구체적인 자녀 관련 요인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지표로 활용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정생활에 만족하는지, 고민을 한국인 또는 모국인에게 의논하는지, 건강한지, 한국사회를 신뢰하는 지가 정신건강에 보호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어 실력은 다른 보호요인에 비해 그 영향력이 적었으며, 개인특성, 가족, 커뮤니티 관련 보호요인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한국어 실력의 보호 효과는 사라졌다. 보호요인 중 영향력 크기가 가장 큰 요인은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이다.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은 가정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길 것으로 판단된다. 가정을 부부와 자녀관계에 국한할 수도 있지만, 결혼이주여성이 시부모님과 동거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Lee & Choi, 2011),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은 부부와 자녀관계를 넘어 시부모님과의 관계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가정의 범위가 규정되지 않더라도 가정생활의 만족은 가족에 대한 만족을 대리하는 지표이다.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왔다는 점(Park & Chung, 2007; Kim, 2012)을 고려할 때 개인 요인보다 가족 관련 요인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본 분석결과는 학술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 다음으로 한국인에게 고민 의논 여부가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한국인에게 고민 의논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집단 특성을 살펴보면, 한국인에게 고민을 의논하는 집단에서 음식차이에 따른 어려움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한국인에게 고민을 의논하지 않는 그룹에서 가족갈등 어려움, 자녀양육 어려움, 외로움, 언어폭력 경험 응답율이 높았다. 한편, 모국인에게 고민 의논 여부에 따른 집단별 특성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발견되는데, 모국인에게 의논하는 집단에서 자녀양육, 문화차이, 가족갈등 관련 어려움과 언어폭력 경험 응답율이 높고, 의논하지 않는 집단에서 음식차이로 인한 어려움 응답율이 높았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고민의 내용과 의논의 대상에 특정한 경향성 혹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누구와 의논을 하며,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신건강 관련 선행연구에서 그동안 개인 요인의 중요

성을 주요하게 강조해온 것에 비해(Park과 Chung, 2007; Kim, 2012), 본 연구 결과는 개인 요인 외 가족과 커뮤니티 관련 요인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만 하다. 또한 결혼이주여성 관련 선행연구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왔던 한국어실력의 경우(Kwon, 2009; Choi, 2007),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개인특성의 요인과 함께 가족 및 커뮤니티 관련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한국어 실력의 영향력은 사라진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결과로 해석된다. 자녀양육, 가족갈등, 경제적 어려움과 폭력의 경험은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며, 가족과 지지체계, 사회가 결혼이주여성을 대하는 태도는 건강상태 등의 개인특성의 요인과 함께 정신건강에 보호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호요인으로 예상되었던 경제활동 여부는 본 연구에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자녀 여부 요인은 그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있어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심층적인 맥락을 파악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추후 질적연구를 수행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중재 전략과 정책적 개입에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에서 분석한 '2012년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자료는 단면조사의 특징을 가지므로 우울 및 스트레스 증상이라는 종속변수의 선행조건으로서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그 결과로서의 정신건강이라는 선후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 과정에서의 영향요인의 역할을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연구에서는 우울 및 스트레스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활동, 자녀양육, 지지체계,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 등의 영향요인의 맥락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자료의 분석 대상자 크기는 G*power 분석에서 단계적 회귀분석에 필요한 적정 표본크기를 초과하였으나, 폭력 경험과 같은 특정 위험요인 경험 응답자 수가 적어, 상호작용 분석과 같은 추가 분석을 수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위험요인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보호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통해 보호요인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바, 위험요인과 정신건강 관계에서 보호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추후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선택적 편향의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012년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자료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와 귀화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영주권자와 귀화자인 결혼이주여성은 그렇지 않은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향후연구에서는 영주권을 획득하지 않은, 혹은 귀화하지 않은, 보호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되는 이주초기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과 그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 관련 정책적 개입에 대한 평가는 논외로 하였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 및 그 가족의 정신건강증진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 가족 차원, 커뮤니티 차원의 정책적 개입과 관련하여 개입의 적절성과 효과, 예산 지출 등을 평가하고 방향을 조정,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고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추후연구를 제안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우울과 스트레스 증상을 파악하고 그 영향요인으로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중재 전략과 정책적 개입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정신건강에 있어 개인특성의 보호요인보다 가족 및 커뮤니티 관련 보호요인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점과 함께 경제활동여부가 이들의 정신건강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자녀양육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가족갈등의 어려움 및 폭력의 경험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인 반면,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고민을 의논할 수 있는 한국인 및 모국인의 지지체계는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어와 가부장적 제도로의 편입을 강조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신건강에 있어 만족할만한 가족생활, 지지체계, 한국사회에 대한 신뢰 등이 개인 요인과 함께 고려되었을 때, 한국어 실력의 정신건강에 대한 보호효과는 사라졌다

고 볼 수 있다. 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한국어 실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족, 지지체계, 한국사회가 이주여성을 대하는 태도 등이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이 부분과 관련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들이 이용하고 있는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구성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고 그들의 지지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위주의 정신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과 그 지지체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마련이 요청된다.

향후연구에서는 위험요인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보호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통해 보호요인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근거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활동, 자녀양육, 고민을 의논할 수 있는 지지체계,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 등의 요인을 포함한 가족과 지지체계, 사회의 이주자에 대한 태도가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맥락을 파악하는 연구가 이뤄져서,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과 그 맥락이 고려된 정신건강증진서비스와 정책이 마련되고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호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되는 이주초기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향후연구가 필요하며, 현재 결혼이주여성 및 그 가족의 정신건강증진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 가족 차원, 커뮤니티 차원의 정책적 개입과 관련하여 개입의 적절성과 효과, 예산 지출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고 정책의 방향을 조정,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추후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Bae, K., & Seo, Y. (2011).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status and mental health in a sample of marriage immigrant women-mediating effect of social adapt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3*(4), 183-202.

Bhugra, D. (2003). Migration and depression.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08*(s418), 67-72.

Cha, S., & Kim, D. (2008). The effect of social roles on depression of foreign wives in Korea: Focused on the difference among Japanese, Chinese and Vietnamese wive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1*(3), 131-157.

Choi. W. (2007). A study on the social-cultural adaptation of foreign wives in Korea. *The Journal of Asian Women, 46*(1), 141-181.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New York, NY: Routledge.

De Snyder, V. N. S. (1987). Factors associated with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among married Mexican immigrant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1*(4), 475-488.

Fenta, H., Hyman, I., & Noh, S. (2004). Determinants of depression among Ethiopian immigrants and refugees in Toronto.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2*(5), 363-372.

Furnham, A., & Bochner, S. (1986). Culture shock. Psychological reactions to unfamiliar environments. London, UK: Methuen.

Han, G. S. (2006). Family life and cultural encounter of foreign wives in rural area. *Korean Cultural Anthropology, 39*(1), 195-243.

Ji, E. J., Choi, J. M., Kim, K. H., Kwon, S. J., Park, E. J., & Rhee, M. K. (2012). The influence of acculturation stress of immigrant women after international marriage on depression: The mediating effect of affective communicatio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7*(1), 243-252.

Kim, H. (2008). Migrant brides and making of a multicultural society- sociological approach to recent discourse on multicultural Kore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2*(2), 36-71.

Kim. H. (2012). Impacts of acculturation & acculturative stress on depression among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Health and Social Science, 32*, 39-70.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6). Retrieved September 9, 2016, from http://kostat.go.kr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7). *Korean policy and system from immigrant perspective*. Seoul: Hanhack Munwha.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2). *A study on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2012*. Seoul: Hanhack Munwha.

Kweon, G. Y., & Park, K. W. (2007). A study on influence factors to the mental health of foreign wives. *Korea Social Research, 14*(2), 187-219.

Kwon, B. (2009). The effects of Korean ability and self-esteem on acculturative stress of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Focused on Vietnamese, Filipino, and Chinese women in Daegu.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1*(2), 5-32.

Lee, A. J., & Choi, Y. S. (2011). Marital conflicts and expectations to family counselors & cultural competence among immigrated women focusing on typology of cultural adaptatio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0*(1), 71-90.

Lee, E. (2013). Urban marriage migrant women's role of a mother and their identities: Focusing on the experience of child

education.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29*(3), 115-146.

Lee, J. K. (2004). Construction and conflict of working class mother's mothering. *Social Science Studies, 12*(1), 1-23.

Lim, H. S. (2011). The experience of transition in pregnancy and childbirth among the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7*(3), 243-255.

Lim, S. J., Oh, S. S., & Han, G. S. (2009). Predictors of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foreign wives through marriage migration.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4*(4), 515-528.

Masten, A. S. (2007). Resilience in developing systems: Progress and promise as the fourth wave ris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9*(03), 921-93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5). *Foreign wives' life in Korea: Focusing on the policy of welfare and health*.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h, S., & Kwak, Y. (2009). The study on the police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of multi-cultural family.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7*(2), 285-309.

Park, J. H., & Chung, J. K. (2007). Acculturation and identity of immigrant wives of international marriages in Korea.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2*(4), 395-432.

Park, J. H., & Yoo, Y. J. (1999). Individual and family relational factors associated with housewives' depressio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4*(1), 91-119.

Park, J., Park, O., & Kim, J. (2007). A study on family conflict and life satisfaction for immigrant women. *Journal of Korean Management Association, 25*(6), 59-70.

Park, M., Shin, H., & Lee, M. (2012). Employment experience of female marriage migrants using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Journal of Social Science, 23*(4), 213-244.

Song, S., & An, H. (2011). Experience of child-rearing of Filipino married immigrant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2), 167-179.

Vanderbilt-Adriance, E., & Shaw, D. S. (2008). Conceptualizing and re-evaluating resilience across levels of risk, time, and domains of competence.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1*(1-2), 30-58.

World Health Organization. (1986). *The Ottawa charter for health promotion*. Geneva, Switzerl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Yang, O. K., & Kim, Y. S. (2007). A study on the effects of depressiveness among foreign wives through marriage migration. *Mental Health & Social Work, 26*, 79-110.